

내가 들은 청기와 장수

필자가 청기와 장수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이 6.25 전쟁이 한창일 때니까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이야기를 해 주신 분은 필자의 외삼촌으로서 어머니의 오라버니 되시는 어른이시다. 이미 고인이 되신지 오래이지만 청기와 이야기만 나오면 그 어른의 생각이 난다. 이야기를 해주신 곳은 경상북도 경산군 자인면에 있는 기와공장이었다.

그 어른께서는 아들 두분을 두시고 보통기와를 생산하면서 생계를 이어 오셨다. 작은 아드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오늘날까지 행방불명으로 남아 있는 걸 보면, 완전히 입대조치가 되기도 전에 전선에 배치되어서 아무도 모르게 죽은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물론 작은 아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집안이 아직 편안하였을 때니까 근엄하신 어른이 우스게 소리를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기와공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좋은 흙을 모아와서 반죽을 할 때 모두가 발로 밟으면서 반죽하였다. 그리고는 반죽된 흙을 낮처럼 생긴 쇠붙이로 기와모양으로 잘라서 말린다. 며칠동안 말린 다음 기와굴에 차곡차곡 넣어서 며칠동안 장작불로 소경시킨다. 이것이 식으면 기와를 꼬집어 내어서 공장장으로 운반해 간다. 장작 사오는 일, 운반하는 일, 수요처를 방문해서 주문받아 오는 일 등은 모두 아드님이 하신다.

이렇게 정성들여 만든 기와도 흑기와인데 대체로 청기와값의 10분의 1밖에 안된다. 그래서 흑기와를 만드는 사람은 소원이 청기와를 만들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것이다. 청기와 장수의 이야기를 이러한 배경에서 들은 것이므로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 청기와를 굽는데는 비책이 있었는데 그 비책을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게 무슨 비밀 노하우라고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고 하니 어디 기술정보가 유통이 되겠는가? 외삼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여기에 정리하여 본다.

청석굴에 기와장수가 있었는데 흑기와도 굽고 청기와도 구우면서 먹고 살았다고 한다. 흑기와는 아무리 많이 구워도 겨우 원가를 빼고 먹고 살 정도인데 청기와를 한번 구우면 아주 비싼 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청기와는 흑기와처럼 수요가 많은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씩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굽는 것이며 때로는 서울까지 운반해 주어야 하기도 해서 막상 번거롭기만 하다고 한다.

청기와 장수에게는 아들을 다섯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청기와 노하우를 아들들에게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거기에는 아들들이 너무 욕심을 부릴까 봐 염려해서라는 이유가 있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아들들은 청기와 비법을 알려주지 않아서 불만이 많았다. 아버지는 청기와 비법을 왜 아들들에게

전수해 주지 않느냐고 불평도 했다. 그러나 청기와 장수는 함부로 알려주었다가 비법이 남에게 새어 나가면 안된다고 보안조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세월은 가서 청기와 장수가 임종에 이르렀다. 임종을 지켜보던 다섯 아들을 보면서 혼자서 생각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 줄 아들은 장남밖에 없으므로 비법을 장남에게만 전수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장남을 불러 귀속말로 그 비법을 알려 주었다고 한다.

그 비법이래야 별거 아니었다. 작은 아들이 들을새라 귀속말로 일러준 내용이 기껏해야 '두벌 반죽때 복숭씨가 시큰하거든 물 한바가지 더 부어라' 였다고 한다. 이것이 비법의 전부였다고 한다. 그래야 표면에 바른 유약이 잘 먹히고 깨끗한 청기와가 만들어 지는 모양이었다.

외삼촌 어른신의 덧붙인 말로서 "그까짓 걸 비법이라고..원" 하시면서 그것도 임종때 장남만 불러서 또 그것도 귀속말로 말하는 상식이하의 행위에 대하여 비웃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끝까지 생계수단으로서 비법을 비밀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한 청기와 장수의 심정도 이해가 된다.

최근에 반도체 회사에서 회사의 비밀을 대만에 팔았다고 온통 신문을 장식한 일을 기억한다. 그러나 비밀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비리나 부정이 생기게 마련이다.

혼자서 발명한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게 해서는 기술 발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술을 공개한다는 조건으로 특별히 사업권을 허가하는 것을 특허라고 하지 않는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등록도 그렇고 판권과 같은 지적소유권도 마찬가지이다. 가능한 한 비밀을 없애고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를 받지마자(공개를 하자마자) 금방 돈많은 기업에서 바로 그 물건을 만들어 내더라는 하소어린 말도 들은 일이 있다. 이렇게 우리사회나 정부가 믿을 수 없어서야 제대로의 기술발전을 기할 수가 있겠는가? 특

허가 기술개발 경쟁을 하는게 아니라 권리확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원래의 정신과는 달리...

순수한 발명은 없다고 한다. 어느 일본인 철학자가 쓴 책이 기억난다. '인생의 재발견' 이란 책인데 1년동안 비서 두사람과 같이 매일 매일의 일기에 그날에 새로 발견한 것을 모두 기록하였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들 발견 항목의 90%이상이 실은 발견이 아니고 재발견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발명이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발명한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조합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아이디어와 발명들이 모두 정리되지 않고 비밀로 유지되기 때문에 유통이 되지 않는다. 만약 이것들이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되어 있다면 새로운 기술의 조합이 수없이 생산될 것인데 어디에 무엇이 있고 누가 무엇을 알고 있고 등의 소재에 관한 정보도 모르는채 기술개발을 한다는 것은 중복연구(재발견)가 아닌가?

벤처기업이란 말이 요즘 유행인데 필자가 보기로 벤처기업은 원어 그대로 모험을 하는 기업이다. 외국의 통계이지만(우리나라에는 이런 통계도 있을 것 같지만) 특히 100건중 실시되는 것은 겨우 10건이라고 한다. 실시되는 기술 10건중 겨우 1건정도가 히트상품이라고 한다. 100건 중 1건만 히트상품이 되어서 100건을 위해 쓴 돈은 다 건진다고들 한다. 즉 벤처기업의 성공확률은 겨우 1%에 불과한게 아닌가 심어서 무척 염려스럽다.

벤처기업이라면 무조건 고용효과도 나고 수출도 증가하고 하는 것은 아닐터인데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하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할 테지만 스스로 투자하는 것도 많아서 실패하는 경우는 그냥 망해 버리면 되는 것인가?

이러한 기술의 등록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기업을 하건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적기에 적절한 정보를 먹여주는 일이 훨씬 경제적이 아닐까 한다.(상명대학교 강사)